

무등산 옛길 복원 주도 임희진 무등산관리사무소장

“자연 호흡하며 문화·역사 사색하는 길로”



지난 2007년 무등산관리사무소에 부임한 임희진(54) 소장의 고민은 무등산을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이라는 자원과 역사와 문학을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산을 오르며 자연을 만끽하고 품을 흘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무등산 옛길이다. 지난해 말 옛길이라는 아이디어를 짜내 협회답사와 인근 주민들의 고증, 각종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난 5월 1구간(산수동~원효사, 7.75km)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한 달 만에 1만 2천 여명이 옛길 1구간을 찾았고, 옛길은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그리고 오는 10일 2구간(원효사~서석대, 4.12km) 개방을 앞두고 있는 임소장을 만났다.

“길을 연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유지도 많았고, 곳곳이 이미 개발돼 산길을 엮어낼 수 없었죠. 문헌조사나 고증, 현지답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입니다.”

그의 고민은 옛길 구상을 끝낸 뒤에도 계속됐다.

그 길을 어느 수준까지 편리하게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광주의 상징이며, 천혜의 자원인 무등산에 옛길을 조성하면서 인공구조물을 마구 설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들도 수 없이 논의를 했지만 그 때마다 의견이 달랐죠. 그래도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전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계단도 주변에 방치된 쪽은 나무를 재료로 했고, 길 주변도 대부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며, 표지판과 표지목을 설

치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무등산에도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10km 이내에 1천m 이상의 산이 있는 곳은 광주 뿐이다. 그만큼 광주에서 무등산은 빼놓을 수 없는 명예이며, 무등산 옛길은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찾아볼 수 없는 ‘히트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임 소장은 “자연 속에서 문화와 역사를 사색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무등산을 문화자원이 되도록 가꾸어야 한다”고 “앞으로 무등산과 가사문화를 연계시키는 역사길을 만들어 옛길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자신의 향후 목표를 소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병원 간호부 ‘천사의 날’ 행사



전남대병원 간호부(부장 최영자)는 지난 6일 ‘제5회 천사의 날’ 행사를 가졌다. 간호부는 이날 본관 분수광장에서 내원 고객을 위한 건강상담,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금화장애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사)금화여성회와 금화장애인장학회 주최로 7일 (재)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제12회 장애학생 장학금 전달식 및 경로 위안잔치’에서 변지우 금화장애인장학회장(오른쪽)이 장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위저량기자 jrw@kwangju.co.kr

효성그룹 3남 조현상-비올리스트 김유영 결혼

18일 서울 근교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셋째 아들 조현상(38·사진 왼쪽) (주)효성 전략본부 전무가 18일 서울 근교에서 비올리스트 김유영(29·오른쪽) 씨와 결혼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7일 “조 전무와 김씨가 양가 가족과 친인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부 김씨는 서울대 음대에서 수학하다 2000년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음대와 예일대 음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 세계적인 월리스터 요요미의 실크로드 앙상블 정단원으로 발탁돼 카네기홀 등 세계 각지의 공연에 참여하는 등 클래식계에 이름이 알려진 비올리스트이다.



하고 있다.

조 전무는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차세대 리더, 2005년 한·중·일 정부의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세계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아 왔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다 지난해 미술전시 행사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부의 부친 김여송(58) 씨는 광주일보 서울취재부장, 서울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광립 대표이사와 도자기 전문기업인 행남자기의 감사를 맡고 있다. 행남자기 김용주 회장과는 사촌간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연합뉴스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자서전 출간

전주언 서구청장이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는 자서전 ‘전주언의 행복한 아침’(도서출판 엔터)을 출간했다.

이번 자서전에는 광주상고 입학·졸업에서부터 은행가로서 꿈을 접고 진로를 바꾼 이유, 고향인 영암군 시종면사무소 9급 공무원 시절, 2급 공무원 승진, 민선 4기 서구청장 당선 등 전 청장의 인생의 주요 전환점과 3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우러난 다양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썼다.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보람과 소회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간 전주언의 모습과 생각들이 담백하게 담겨 있다.

이 책은 ▲세 번의 아침 ▲행복 서구 이야기 ▲전주언의 삶 이야기 ▲칼럼·보도 ▲내가 본 전주언 등 5부로 나눠 유년시절부터 37년간의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담담하게 그렸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



던 전 청장의 이야기는 읽는 이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특히 구청장 명찰을 단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각 동(洞) 주민센터를 돌며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한 ‘365 민원봉사실 운영’ 등을 전 청장의 주민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느끼게 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문화가정 주부 음식만들기 체험 교실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는 9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다문화가정 주부 40명을 대상으로 음식 만들기 체험행사인 함지박교실을 열었다.

전남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시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이달의 새농민상’ 10월 수상자로 김태옥·임선희(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박동기·정순옥(장성군 남면 삼태리), 이승문·장미경(해남군 현산면 흐의리)씨 부부를 선정, 시상했다.



김태옥(48·구농장)씨 부부는 1만 6천여평의 벼를 경작하면서 한우 160마리를 사육, 조사료 연결체 사업에 참여해 사료값 폭등에 대처했다.

박동기(48·서태농장)씨 부부는 고품질 쌀 작곡반을 이끌고 있다. 이승문(51·팡гла이)씨 부부는 유색 고구마 생산을 통해 연간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박동기씨 정순옥씨

김태옥씨 임선희씨

이승문씨 장미경씨

화순 군민의 삶에

김형애·한두희씨



한두희씨는 36여년을 산림분야에서 공직생활을 마친 퇴직공무원으로 화순군 명산인 만연산 주변에 생태숲을 조성, 관광 명소화해 살기 좋은 화순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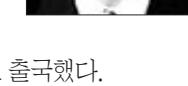
인사

◆광주과학기술원
▲대외협력실장 최희철 ▲대외협력팀장 김용렬

간 시부모를 봉양하고 1977년부터 부녀회장직을 수행하며 협력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10여년 동안 보살피는 등 경로효친을 남다르게 실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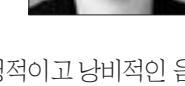
한일 해협권協 참석 출국

하동만 전남발전연구원장은 7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2009년도 종회 참석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했다.



‘신 음식문화’ 홍보관 운영

양명자 광주전남 영암사회장을 명랑 대접죽제가 열리는 진도군 녹진 지역에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신 음식 문화운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비워생하고 남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제광문대 중·고등학교 동문회장 오행원회 체육대회=11일(일) 오전 10시 청단 광주전자공고 운동장. 062-267-8400.

향우회

▲재광 곡성군 삼기면 항우회(회장 김재정) 월례회=11일(일) 오후 6시 두암동 예술영락뜰술밥. 062-266-5566.

종친회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영) 분기모임=8일(목) 오후 6시 바다이야기. 062-675-5250.

▲전주최씨 광주전남대동회수회 2009년 추계총회=10일(토) 오전 11시 광주공원 뒤 전주최씨 화수정. 017-602-2867.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돌문화재 신설’ 체험학습 참가자 모집=10일(토) 오전 10~12시 학부모를 동반한 초등 2~6년 40명(20팀) 접수순 마감. 참가비 5천원. 062-521-9041.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 수해 드립 = 북구 우산동 덕성아발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불광장 건물 1층. 062-651-1175~6.

▲‘미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불광장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미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 = 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유품교실(수·오후 10시), 타구교실(수·오후 2시), 자동탁구교실(화·목·오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이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 = 기초부터 학습, 물건, 채권, 권리분석, 접수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석, 현장답사 직장인 스터디를 통한 체계적 교육.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해 힌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검정=

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이파트협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부모

▲위현랑씨 별세 두황(사업)·승환(사업)·승두(조선대 체육대학 교수)·두설(사업)씨 부친상=발인 8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오제순씨 별세 김정수·준영(현 대중공업)·활란·애린(대한한주부를 럽연합회 영암지부장)씨 모친상 박종희(영암 박종희치과의원)씨 빙모상 =발인 8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3.

▲박근동씨 별세 김윤일(전 소록도 병원장)·윤호(변호사)·윤곤·준미·장미·윤미씨 모친상 이상국(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특별보좌역)씨 빙모상=발인 8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박여림씨 별세 김정수·준영(현 대중공업)·활란·애린(대한한주부를 럽연합회 영암지부장)씨 모친상 박종희(영암 박종희치과의원)씨 빙모상 =발인